

2024년 9-2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9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 [LG경영연구원 (2024년 9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연준 4년반 만에 금리 인하, 유럽중앙銀 추가 금리 인하

- 미국은 8월 실물지표들이 소폭의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4년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말 경기 부진 우려에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시사
- 일본은 7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현 금리 수준 동결에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유로존은 7월 내수 지표들의 약세 속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
- 중국은 8월 내·외수 지표들의 미약한 흐름 속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은 기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 시사
- 달러화는 9월 들어 제한적인 등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 인플레이 둔화 지속과 연준의 예상외 빅컷과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세
- 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약세 우려로 70달러선이 붕괴된 이후,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와 이스라엘-레바논 교전 격화 등으로 70달러를 회복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4%, 소비 감소·투자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상당폭 감소(전월비 -3.6%)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7%)에 그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지속(전월비 -0.4%)
 - 소매판매는 내구재 등 모든 재화의 판매가 동반 감소하면서 1.9%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50.5%)에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10.1% 증가

□ 국내금융 : 8월 기업대출 증가 지속 및 가계대출 확대, 9월 중순(9월 12일 ~ 25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하락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전월과 달리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상당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 들어 美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하고, 연준의 빅컷 이후 경기 연락처 기대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소폭 반등
- 원/달러 환율은 9월 초 美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제한적 등락세를 보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추가 하락 부담 등으로 강보합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9%, 서비스업생산 +2.2%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차금속·섬유제품 등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기타운송장비·화학제품·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5.9% 증가
 - 제조업ICT 등 중공업 생산은 증가세가 지속, 경공업 생산도 증가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을 제외하고,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비 2.2%)

□ 고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4% 증가

- 지난 8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0.6% → 0.4%)

□ 수출입 : 8월 수출 +11.2%, 수입 +6.0%,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2%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이 6.0% 증가한 54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을 비롯해 선박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역별로는 對중동 수출만 감소하고, 미국·아세안·EU·인도·중동·중국·중남미·일본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7월 13.5% → 8월 11.2%)

1. 해외경제

□ 미국 : 8월 경제지표 반등, 연준 50bp 금리 인하, 연내 추가 인하 시사

○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이 소폭 반등하면서 전월의 부진을 만회. 연준이 9월 회의에서 4년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말 경기 부진 우려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

- 산업생산이 제조업(전월비 0.9%)과 광업(0.8%) 등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월과 달리 증가(0.8%)세를 회복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2%)와 전자제품(-1.1%) 등 판매의 전반적인 약세 영향으로 인해 소폭 증가(0.1%)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와 생산의 동반 하락에도 고용 증가에 힘입어 5개월 만에 반등(47.2)하고,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현재 평가지수(134.4)와 미래 기대지수(82.5)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추가 상승세(103.3)
-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7월 +8.9만 개 → 8월 +14.2만 개)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6월 -0.2% → 7월 -0.6%)
- 연준이 9월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하고, 연말 경기 부진 우려에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3.4 (3.1)	1.4 (2.9)	3.0 (3.1)				
산업생산 (IT생산)	3.4 (6.5)	0.2 (5.7)	-0.4 (2.2)	-0.4 (0.6)	0.7 (3.7)	0.7 (1.0)	0.1 (-1.3)	-0.9 (0.9)	0.8 (1.7)
내구재수주	8.2	4.4	0.6	-3.3	-1.1	0.1	-6.9	9.8	-
소매판매	9.1	3.6	0.8	-0.2	0.5	0.2	-0.3	1.1	0.1
소비자물가	8.0	4.1	0.7	0.9	0.7	0.0	-0.1	0.2	0.2
실업률(%)	3.6	3.6	3.7	3.8	4.0	4.0	4.1	4.3	4.2
무역수지(10억US\$)	-944.8	-784.9	-194.0	-203.2	-223.2	-75.3	-73.0	-78.8	-
ISM 제조업지수 ¹⁾	53.5	47.1	46.9	49.1	48.8	48.7	48.5	46.8	47.2
소비자신뢰지수 ²⁾	104.5	105.4	102.7	106.3	98.9	101.3	97.8	101.9	103.3
경기선행지수 ³⁾	115.1	106.3	103.4	102.5	101.3	101.2	101.0	100.4	100.2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7월 실물지표 혼조, 일본은행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7월 생산 증가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가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가 수출 증가와 수입 확대 영향으로 2개월 만에 다시 적자 전환.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일본은행(BOJ)이 7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9월에는 현 금리 수준을 동결하면서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0	1.9	0.1	-0.6	0.7				
광공업생산	0.0	-1.4	1.1	-5.1	2.7	-0.9	3.6	-4.2	3.1
민간기계수주	5.4	-3.8	-1.3	4.4	-0.1	-2.9	-3.2	2.1	-0.1
소매판매	2.6	5.7	-0.9	0.0	1.8	0.8	1.6	0.6	0.2
소비자물가	2.5	3.3	0.9	0.2	0.8	0.2	0.5	0.3	0.2
실업률(%)	2.6	2.6	2.5	2.5	2.6	2.6	2.6	2.5	2.7
무역수지(10억엔)	-20,330	-9,322	-1,398	-1,767	-1,470	-471	-1,223	219	-629
경기선행지수 ¹⁾	112.3	109.2	109.4	111.1	110.4	111.0	111.0	109.1	109.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8월 실물지표 약세, 올해 성장률 목표치(5% 안팎) 달성 불확실

- 지난 8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 역시 한 자릿수 증가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약세. 최근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 속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에도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이 기준을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시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5.2	5.3	4.7				
산업생산	3.4	4.6	6.0	5.8	5.9	5.6	5.3	5.1	4.5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3.0	4.5	3.9	4.0	3.9	3.6	3.4
소매판매	-0.8	7.8	8.4	4.3	2.7	3.7	2.0	2.7	2.1
소비자물가	2.0	0.2	-0.3	0.0	0.3	0.3	0.2	0.5	0.6
수출(달러화기준)	5.6	-4.7	-1.3	1.4	5.8	7.5	8.6	7.0	8.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7월 생산·소비 동반 약세,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금리 인하

- 7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인플레이션과 무역흑자 규모가 전월과 비슷.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대 성장 둔화 억제 를 위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미지수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4	0.5	0.1	0.3	0.2				
산업생산	2.1	-2.1	-0.1	-1.0	-0.4	-0.2	-0.9	0.0	-0.3
소매판매	1.2	-2.0	0.3	0.0	0.3	0.0	0.1	-0.4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8.4	5.4	2.7	2.6	2.5	2.4	2.6	2.5	2.6
무역수지(10억유로)	-345.8	59.7	39.0	59.1	47.4	18.7	11.7	17.0	15.5
경제체감지수 ¹⁾	102.1	96.4	94.8	96.0	95.9	95.6	96.0	96.0	96.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지속 & 유가 약보합

- 달러화는 9월 들어 미국 경기침체 우려 증대와 연준의 FOMC 경제감 등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 이후, 미국 인플레이 둔화 지속과 연준의 빅컷(-50bp) 단행과 연준 관계자들의 추가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세
- 유가는 9월초 OPEC+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 결정에도 미국 등 경기침체 우려로 WTI 기준 배럴당 70달러선이 일시 붕괴된 이후, 美 원유재고 감소세와 美 달러화 약세, 이스라엘-레바논 교전 격화 등으로 70달러선을 재차 회복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25일
엔/달러	141.04	146.92	149.98	151.35	157.80	157.31	160.88	149.98	146.17	144.75
달러/유로	1.1039	1.0818	1.0805	1.0790	1.0666	1.0848	1.0713	1.0826	1.1048	1.1133
미 국채 (10년만기)	3.88	3.91	4.25	4.20	4.68	4.50	4.40	4.03	3.90	3.78
WTI유	71.7	75.9	78.3	83.2	81.9	77.0	81.5	77.9	73.6	70.3
두바이유	76.5	81.2	80.5	86.8	87.6	82.7	84.9	79.5	77.1	74.7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4%, 소비 감소·투자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상당폭 감소(전월비 -3.6%)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7%)에 그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지속(전월비 -0.4%)

- 광공업생산이 반도체(-8.0%)와 자동차(-14.4%), 기계장비(-2.9%) 등 다수 업종에서 동반 감소하면서 전월비 3.6%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4.5%)과 운수·창고(3.1%)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7%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2.7*	1.4*	2.1* (0.5*)	3.3* (1.3*)	2.3* (-0.2*)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2*	1.8*	0.7* (0.4*)	1.0* (0.7*)	0.9**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3*	1.1*	-0.2* (2.8*)	-1.0* (-2.0*)	-2.5* (-1.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3.5*	1.5*	-1.2* (-3.8*)	1.6* (3.3*)	-0.5* (-1.7*)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1.0	1.3 (0.7)	2.9 (0.7)	2.1* (-0.3*)	3.4 (1.4)	2.3 (-0.8)	0.5* (-0.1*)	2.7* (-0.4*)
광공업생산지수	1.0	-2.6	4.8 (2.2)	5.9 (-0.3)	4.8* (1.1*)	6.4 (2.6)	4.2 (-0.7)	3.8* (0.7*)	5.5* (-3.6*)
제조업생산지수	0.9	-2.6	5.1 (2.2)	6.2 (-0.5)	5.0* (1.5*)	6.7 (2.9)	4.4 (-0.6)	3.9* (0.7*)	5.9* (-3.8*)
서비스업생산지수	7.0	3.2	1.8 (0.3)	2.1 (0.8)	1.6* (-0.3*)	2.4 (0.8)	2.0 (-0.8)	0.5* (0.3*)	2.2* (0.7*)
소매판매액지수	-0.3	-1.5	-1.9 (0.4)	-2.1 (-0.5)	-2.9* (-0.8*)	-2.0 (-0.6)	-2.8 (-0.2)	-3.6* (1.0*)	-2.1* (-1.9*)
설비투자지수	2.5	-4.9	-6.0 (5.0)	0.3 (-3.8)	-1.5* (-0.2*)	0.4 (1.6)	-1.4 (-3.6)	-3.3* (3.4*)	18.5* (10.1*)
건설기성(불변)	2.8	7.3	0.6 (-2.5)	4.1 (4.9)	-2.7* (-5.9*)	0.6 (4.9)	-3.2 (-4.6)	-5.3* (-0.8*)	-5.3* (-1.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110.2	111.0	111.8	111.8*	112.0	111.6*	111.7*	111.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1	99.9	99.9	99.3*	99.7	99.1*	99.0*	98.4*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110.9	112.9	114.1	115.3*	114.9	115.2*	115.7*	115.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	99.3	100.0	100.3	100.5*	100.5	100.5*	100.6*	10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2.3%)를 비롯해서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 등 모든 재화의 판매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인해 전월비 기준 1.9%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감소 전환(전월비 -6.5%)한 반면에, 자동차 등 운송장비(50.5%)에서 대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10.1%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8.9%) 공사 실적이 상당폭 부진하면서 감소 지속(-1.7%)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내수출하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비 하락 전환(-0.4%)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와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면서 17개월 연속으로 상승(0.2%)

□ 물가 : 8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6%

- 8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2%)와 주택·수도·전기·연료(0.8%), 음식·숙박(0.3%), 교통(0.1%) 등 대다수 부문에서 전월비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2.0%,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
- 8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 상승(전월비 1.6% → 5.3%)에도 공산품 가격(0.3% → -0.8%)의 하락 전환과 서비스 가격(0.2% → 0.0%)의 보합 등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하락 전환(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5.1	3.6	3.4 (0.7)	3.0 (0.7)	2.7 (0.3)	3.1 (0.1)	2.9 (0.0)	2.7 (0.1)	2.4 (-0.2)	2.6 (0.3)	2.0 (0.4)
근원물가	4.1	4.0	3.3 (0.6)	2.6 (0.5)	2.1 (0.4)	2.4 (0.0)	2.2 (0.2)	2.0 (0.2)	2.0 (0.1)	2.1 (0.1)	1.9 (0.1)
생산자물가	8.4	1.6	0.8 (0.2)	1.4 (0.8)	2.2 (0.6)	1.5 (0.2)	1.9 (0.3)	2.3 (0.1)	2.5 (0.0)	2.6 (0.3)	1.6* (-0.1*)
근원물가	6.3	0.9	0.7 (0.2)	1.1 (0.6)	1.9 (0.9)	1.0 (0.2)	1.3 (0.4)	1.9 (0.3)	2.4 (0.1)	2.6 (0.2)	1.8* (-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8월 기업대출 증가 지속 및 가계대출 확대

- 지난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 대출은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확대
(2024년 7월 +7.8조원 → 8월 +7.2조원, 대기업 +1.9조원, 중소기업 +5.3조원)
 - 대기업 대출이 전월의 반기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 등의 영향이 소멸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
 -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기업대출 영업 지속, 중소기업인들의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
- 회사채는 차환자금 先조달,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4년 7월 -1.9조원 → 8월 -0.5조원)
- CP·단기사채는 공기업 등에서 순상환 기조로 전환
(2024년 7월 +0.8조원 → 8월 -1.1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증가폭이 축소
(2024년 7월 +1.1조원 → 8월 +0.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원화대출	80.5	8.7	56.6	8.2	64.2	5.3	7.8	7.2	1,311.9
(대 기 업)	23.3	2.9	23.3	2.9	27.1	0.7	4.4	1.9	275.0
(중소기업)	57.3	5.8	33.3	5.2	37.0	4.6	3.4	5.3	1,036.9
〈개인사업자〉	18.3	2.2	6.2	1.2	5.4	0.3	0.8	0.8	455.7
■회사채 순발행	-1.5	0.3	2.9	-1.1	0.4	-1.7	-1.9	-0.5	..
■CP 순발행	16.0	3.5	1.2	-1.8	3.4	-1.6	0.8	-1.1	58.9
■주식발행	19.9	0.3	3.7	0.5	5.7	0.7	1.1	0.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타대출 역시 3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전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4년 7월 +5.4조원 → 8월 +9.3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4년 7월 +5.6조원 → 8월 +8.2조원)
- 기타대출은 여름 휴가철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
(2024년 7월 -0.1조원 → 8월 +1.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0.1	0.3	16.9	6.9	35.1	5.9	5.4	9.3	1,130.0
■주택담보대출	13.8	1.6	28.9	7.0	40.2	6.2	5.6	8.2	890.6
■기타대출	-13.9	-1.3	-11.9	-0.1	-5.0	-0.3	-0.1	1.1	238.4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9월 중순(9월 12일 ~ 25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 들어 美 경기침체 우려 부각과 연준의 FOMC 경계감 등에 美 국채금리와 동반 하락하고, 연준의 예상외 빅컷(-50bp) 단행 이후에는 美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소폭의 반등
(9월 12일 2.866% → 9월 25일 2.812%, -0.05%p)
- 원/달러 환율은 9월 초 美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연준의 FOMC 경계감 등으로 제한적 범위의 등락세를 보이고,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하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강보합
(9월 12일 1,338.7원 → 9월 25일 1,331.0원, -7.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2	2023				2024			
		2/4	3/4	4/4	1/4	2/4	7월	8월	9.25일
국고채(3년)	3.72	3.66	3.88	3.15	3.32	3.18	3.00	2.95	2.81
회사채(3년, AA-)	5.23	4.47	4.64	3.90	3.93	3.66	3.46	3.50	3.40
CD(91일)	3.98	3.75	3.83	3.83	3.64	3.60	3.50	3.52	3.53
CP(91일)	5.28	4.02	4.08	4.32	4.24	4.17	3.92	3.62	3.62
원/달러	1,264.5	1,317.7	1,336.5	1,288.0	1,347.2	1,376.7	1,376.5	1,336.0	1,331.0
원/100엔	953.2	907.0	901.3	912.7	889.5	864.3	905.4	921.8	932.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5.9%, 전월비 -3.8%

○ 제조업생산이 자동차(-9.9%), 1차금속(-4.5%), 섬유제품(-1.9%)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22.2%), 기타운송장비(10.3%), 화학제품(4.9%), 기계장비(5.7%), 전자부품(0.8%)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5.9%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8.9%) 등 중공업(6.3%) 생산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공업(3.0%) 생산도 2개월 만에 다시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5.4%), 1차금속(1.3%), 화학제품(0.2%)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8.0%), 전자부품(-11.8%), 섬유제품(-4.4%), 기계장비(-2.9%), 자동차(-14.4%)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3.8%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2.3)는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등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0.8% 상승(11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6%로 전월과 달리 9.7%p나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7월중 출하가 소폭 감소(-2.1% → -0.6%,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에 그치고, 재고 역시 감소폭이 축소(-5.6% → -4.6%)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4%로 전월(73.8%)보다 2.4%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2.2%, 전월비 +0.7%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6%)와 숙박·음식점(-3.0%)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운수·창고(9.0%), 정보통신(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3.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6%) 등에서 동반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2.2%)

- 전월비로도 숙박·음식점(-2.8%)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9%), 전문·과학·기술서비스(0.6%), 도소매(0.1%)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7%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6.1%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2	2023		2024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9.6	106.8	112.7	107.5	111.5	112.0	112.8	109.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0	-2.6	4.8	5.9	4.8	4.2	3.8	5.5	-3.6
제조업 (원지수)	9,532.0	109.8	106.9	113.0	106.9	112.5	113.1	113.9	110.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9	-2.6	5.1	6.2	5.0	4.4	3.9	5.9	-3.8
섬 유	110.6	-1.8	-9.4	-7.8	-6.2	-1.0	1.2	-3.4	-1.9	-4.4
화 학	756.8	-9.9	-9.6	2.1	-2.3	3.2	4.6	1.5	4.9	0.2
철 강	433.8	-8.4	2.7	19.8	0.4	-8.3	-10.5	-9.6	-4.8	1.2
반도체	1,855.1	5.4	-2.0	34.5	44.7	22.3	17.7	26.7	22.2	-8.0
컴퓨터, 주변장치	30.0	11.2	-12.4	-17.9	-8.4	-18.5	-19.2	-15.2	-5.5	-9.0
통신, 방송장비	134.7	-5.2	-4.0	-2.6	-11.6	8.4	21.1	9.7	63.8	48.8
의료, 정밀, 광학	237.0	5.4	-9.9	-11.7	2.0	4.5	4.0	-4.9	20.5	9.2
기계, 장비	776.7	0.6	-7.8	-11.8	-4.9	-0.7	-2.1	-3.7	5.7	-2.9
자동차	1,014.2	9.1	10.2	0.2	-3.2	-0.8	-1.9	-3.9	-9.9	-14.4
조 선	76.7	21.0	2.3	-7.3	-7.3	5.3	10.1	1.0	22.4	16.3
- 중 공 업	8,111.7	1.0	-2.0	6.8	7.4	5.8	4.9	5.1	6.3	-4.5
- 경 공 업	1,420.3	0.7	-5.9	-4.3	-1.2	0.6	1.5	-2.5	3.0	0.3
- 제조업ICT	2,537.6	0.5	-5.6	23.4	32.4	18.8	15.9	21.6	18.9	-6.4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12.3	115.8	121.0	114.0	117.4	117.0	119.1	117.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7.0	3.2	1.8	2.1	1.6	2.0	0.5	2.2	0.7
도소매	192.0	2.7	-0.7	-1.5	-4.0	-2.2	-1.7	-3.9	-0.6	0.1
운수및창고	85.6	18.4	12.5	10.2	12.6	10.5	9.4	8.7	9.0	3.1
숙박및음식점	49.3	16.9	0.8	-3.6	-1.7	-1.4	-1.0	-1.0	-3.0	-2.8
정보통신	84.3	1.5	0.0	3.0	6.6	4.1	4.4	2.9	5.0	4.5
금융및보험	174.9	8.6	6.2	0.2	3.5	2.8	4.4	2.7	2.3	-1.3
부동산	31.7	8.0	3.2	1.8	2.9	0.8	-0.8	1.3	1.8	1.5
전문·과학및기술	97.2	2.3	1.5	1.7	0.5	1.5	1.5	-1.8	3.4	0.6
사업시설관리 등	51.6	5.3	5.0	5.8	3.4	1.1	1.5	-0.7	1.6	1.9
교 육	69.1	1.2	0.4	0.5	-1.1	-0.6	-0.4	-0.1	0.9	0.0
보건및사회복지	110.6	7.7	3.6	3.6	4.2	1.0	1.0	1.6	2.6	1.6
예술·스포츠및여가	18.1	43.7	6.9	3.4	4.1	4.8	8.9	1.2	-0.7	-1.3
협회·수리및개인	23.5	4.4	4.2	3.0	-0.2	0.9	3.5	-2.0	2.0	1.1
수도·하수및폐기물	12.1	-4.6	-1.6	-3.3	-2.4	-1.4	-0.8	-5.6	0.0	0.9
- ICT서비스업	-	5.3	1.2	3.6	4.2	2.9	2.2	4.5	4.1	-6.1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8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4% 증가

○ 지난 8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 역시 2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0.6% → 0.4%)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0.2% → -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1.6% → -2.4%)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 수준과 동일(0.9% → 0.9%)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3.9% → -3.9%)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역시 3개월 연속 감소세(-0.5% →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는 정보통신업(7.8% → 9.7%)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2.7% → 7.0%)의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6% → -2.0%)의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2% → 2.2%)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2% → 1.9%)의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축소(1.2% → 0.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4%까지 하락(1999년 6월 집계 이후 최저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28,089	28,416	28,518	28,061	28,838	28,693	28,915	28,907	28,857	28,801
전년동기비	3.0	1.2	1.1	1.1	0.5	0.9	0.3	0.3	0.6	0.4
농림·어업	4.6	-0.8	-0.2	-2.3	-1.2	0.3	-2.0	-2.0	-1.6	-2.4
제조업	3.1	-0.9	-0.6	0.8	1.1	2.3	0.8	0.2	-0.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5	1.3	0.5	0.7	0.3	0.5	0.9	0.9
건설업	1.6	-0.4	1.8	2.1	-1.7	0.3	-2.2	-3.1	-3.9	-3.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0.6	-0.1	0.0	-0.2	0.1	-0.1	-0.5	-0.9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3.4	3.4	3.6	3.7	3.0	4.1	5.1	6.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1.3	1.2	0.3	0.3	0.1	0.4	1.2	0.9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8	2.8	2.8	2.8	2.8	2.8	2.5	2.4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8월 수출 11.2% 증가, 수입 6.0% 증가,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2%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이 6.0% 증가한 54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을 비롯해 선박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역별로는 對중동 수출만 감소하고, 미국·아세안·EU·인도·중동·중국·중남미·일본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7월 13.5% → 8월 11.2%)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 등) 수입이 상당폭 증가(17.3%)한 반면, 非에너지 수입이 한 자릿수 증가율(3.0%)에 그치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6.0%)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6.8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1% 상승에 그친 반면, 도입물량이 27.4%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30.1%나 증가한 약 82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6,836 (6.1)	6,322 (-7.5)	1,681 (5.7)	1,634 (8.1)	1,715 (10.1)	561 (13.6)	580 (11.4)	574 (5.6)	573 (13.5)	578 (11.2)
수입	7,314 (18.9)	6,426 (-12.1)	1,586 (-10.7)	1,549 (-11.0)	1,570 (-1.4)	547 (5.4)	532 (-2.0)	491 (-7.5)	539 (10.5)	541 (6.0)
무역수지	-478	-103	96	85	146	14	49	83	34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ICT 업종 및 조선·석유화학 수출 증가,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감소

○ 반도체 :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 : 일부 업체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영향,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화재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
- **자동차부품** : 주요 완성차 수출시장에서의 조립용 부품 수요 확대에도 전기차 수요 둔화, 對유럽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선박류** : 선가 상승기(2022년 이후)의 수주물량 인도 지속과 고부가가치 선박(LNG운반선,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디스플레이** : 신규 출시 스마트폰의 사전 판매 감소와 對아세안 수출(전체 수출의 60% 차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무선통신기기** : 하반기 신규 IT제품의 출시와 AI 기능 탑재형 스마트폰·폴더블폰의 부품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對유럽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고부가 산업용 섬유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추동 시즌 의류 판매의 감소와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석유제품** : 글로벌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들의 전년 대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신증설 설비 가동 확대에 의한 수출물량 증가, 유화제품의 수출단가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AI 데이터센터 쿨링 시스템(냉방·공조기) 수요 확대 영향에도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수출이 재차 감소 전환
- **가전** : AI 스마트가전 신제품 출시 및 보급 확대 등에도 주요 시장(미국·유럽 등)에서의 소비 여력 회복세가 크지 않으면서 수출이 감소 전환

- 컴퓨터 : AI 수요 확대에 의한 기업용·PC용 SSD 수출 확대 지속,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수출시장(미국·EU 등)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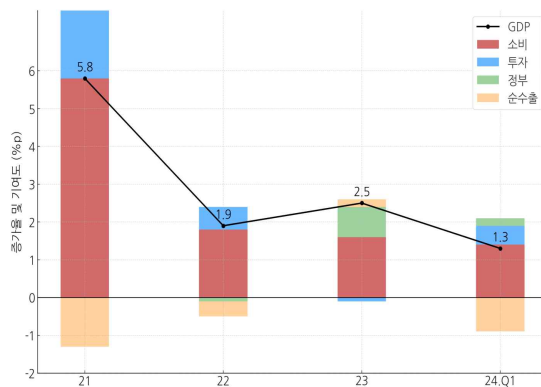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16.4	31.1	19.6	2.7	4.8	10.2	4.7	-0.4	-9.1	-4.3
자동차부품	2.4	-1.6	-3.9	-0.5	-4.8	2.9	-5.3	-11.7	2.3	-3.6
선박류	-20.9	19.9	58.7	57.4	4.3	5.6	115.6	-39.8	-36.2	80.0
일반기계	2.0	4.6	8.5	0.4	-4.0	0.1	-3.9	-8.3	12.6	-5.9
철강	5.7	-8.5	-5.9	-5.6	-14.4	-5.8	-12.0	-24.3	-5.4	-1.7
석유화학	-1.4	-15.9	2.2	0.0	10.8	13.0	7.6	11.9	18.4	6.5
석유제품	64.9	-17.3	1.5	4.3	11.5	18.2	6.5	10.5	16.0	0.3
섬유	-4.0	-11.3	-6.3	-7.0	-3.1	1.0	1.4	-11.2	1.2	-5.0
가전	-7.4	-1.0	7.5	1.6	5.4	9.3	6.9	-0.3	9.3	-4.9
무선통신기기	-10.4	-10.2	0.4	-9.8	8.2	11.3	9.3	3.8	53.5	50.4
컴퓨터	-4.7	-53.3	-31.6	26.3	58.9	75.5	48.5	58.9	61.7	183.2
반도체	1.0	-23.7	10.4	50.7	53.5	56.1	54.4	50.9	50.2	38.8
디스플레이	-1.1	-12.1	10.8	12.5	19.5	16.3	15.8	26.0	2.4	-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LG경영연구원(2024년 9월)

- 미국 경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지속
-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 이후 2024년 1분기까지 미국 GDP는 8.6% 증가하면서 여타 선진국 성장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나 홀로 호황’을 시현
- 미국 경제 호조의 배경을 가계와 기업, 정부, 대외부문 등 경제주체별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경제 호황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

〈 美 GDP 증가율과 성장기여도 (%p) 〉 〈 미국의 구인건수 및 실업자수 추이 〉



자료 : 美 경제분석국(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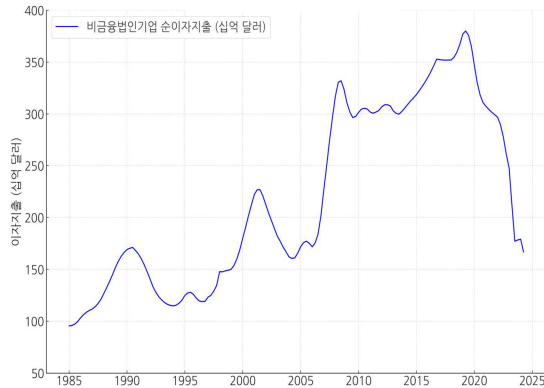


자료 : FRED.

□ 미국 경제 호황의 배경

- (가계) 막대한 초과 저축·순자산 증가·고용시장 호황·고정금리 대출
 - 미국은 민간소비가 전체 GDP의 68%(2008년 이후 평균)에 달하는 소비 중심의 경제로 가계 소득 및 자산 등의 변화가 전체 경기변동을 좌우
 - 팬데믹 기간의 초과저축과 주식시장 호황, 고용시장 호조,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미국 가계부문의 성장을 견인
- (기업) 견조한 이익 증가와 그에 기반한 이자소득 증가
 - 美 법인기업들의 실질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팬데믹 여파와 연준의 금리 인상, 러-우 전쟁 등의 고비용·고금리 환경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견인
 - 견조한 이익 증가세는 강한 노동수요로 이어지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도 증가
- (정부) 팬데믹 기간의 가계 현금지원,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방비 지출
 - 美 정부의 가계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은 2021년 중으로 종료되었으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실질 국방비 지출이 3.4% 증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

〈 美 비금융법인기업들의 순이자지출 〉



자료 : FRED.

〈 美 법인기업들의 실질이익 〉



자료 : FRED.

○ (대외부문) 상대적으로 더딘 수출 회복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팬데믹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빠르게 이전 추세로 복귀한 반면, 달러화 강세로 수출 회복이 더디면서 무역적자가 확대

□ 향후 미국 경제 호황의 지속 가능성

○ (가계) 저축 소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 트럼프 재선은 소비 둔화 요인

- 美 경제 호황의 중요한 원동력인 초과저축은 2024년 3월 기준 전액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소비는 자산시장 성장세와 근로소득 증가에 의존 예상
- 트럼프 정부 재출범 시 해외노동력 유입의 둔화로 추가적인 소비 둔화가 예상되며, 관세정책도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기업) 고비용 구조 완화로 성장세 예상, 트럼프 당선은 투자 확대의 변수

- S&P500 기업 중 실적 발표에서 '경기침체'를 언급한 빈도 역시 크게 감소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 감소 전망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 대한 지원법은 올해까지 국방비 지출 확대에 이어져 경제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 지원은 난항 예상

○ (대외부문) 무역수지 적자 축소 가능성, 트럼프 재선 시 통상 리스크 확대

- 무역수지는 달러화 강세 완화와 대외 수요 개선으로 다소 축소되면서 美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재선 시 통상 리스크는 확대 우려




○ (물가 및 금리) 인플레이 완화로 연내 1~2차례, 2025년 4차례 금리 인하 예상

- 금리 인하로 가계, 기업의 부채 부담이 줄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개선 기대

○ (금융 불안) 지방은행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과 자산시장 불안 가능성도 완화

-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 불안의 심화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9.23일)	(9.24일)	(9.25일)	(9.26일)	(9.27일)
	 9월 소비자신뢰지수  8월 생산자물가	 9월 소비자동향조사	 23.2분기 실질GDP (확정치)  8월 내구재수주잠	 8월 무역수지(수)  7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9월 경제제감지수  8월 개인소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9.30일)	(10.1일)	(10.2일)	(10.3일)	(10.4일)
 8월 산업생산(잠)  8월 소매판매(잠)  8월 산업활동동향	 8월 실업률  9월 소비자물가(예)  9월 ISM 제조업지수  9월 수출입통계	 8월 실업률  9월 소비자물가	 9월 ISM 서비스업지수	 9월 고용보고서
(10.7일)	(10.8일)	(10.9일)	(10.10일)	(10.11일)
 8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8월 소매판매	 8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10.13일)  9월 수출입통계  9월 소비자물가
(10.14일)	(10.15일)	(10.16일)	(10.17일)	(10.18일)
	 8월 산업생산(수)  8월 소매판매(수)  8월 산업생산	 8월 기계수주  9월 고용동향	 9월 무역수지(잠)  9월 소비자물가(수)  8월 수출입통계  ECB 통화정책회의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소비자물가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고정투자  24.3분기 실질GDP